



본지 천미희 기자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동참기

절 한번의 간절함에 삼천배 의미 깃들여

감로사에서 3천 배 절을 하고 있는 불자들.

“나무화공여래불~ 나무인중존여래불~ 나무사자보여래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도 하고 불렀다. 2월 29일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 삼천배 삼천배 참회기도에

인제하고 삼천 부처님께 귀의하는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1천 여명이 넘는 불자들이 동참

한다는 기도 열기를 전해 듣고는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 하나로 떨쳐 입재를 한 것이다.

이른 아침,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천 여 불자들이 삼천배를, 극락전, 노천

마애불 앞, 불교대학 가건물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어떤 마음으로 입재를 했을까. 이날 최고령(94세)으로 동참한 무상행 보살에게 슬며시 질문을 던졌다.

“40년 전부터 감로사에서 매년 참회기도를 해 왔어. 참회는 내 생활의 일부야. 일년 내내 부처님법대로 잘 살려고

부처님하고 새롭게 약속하는 거지.” 무상행 보살의 말이 참회기도의 의미를 되짚어주었다.

1951년 자운·성철 스님 등 큰스님들이 참회기도를 시작한 뜻을 헤아리는 동안 절이 시작됐다.

절이 백 배를 넘어가면서 다리에 통증이 왔다. 6백 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2백 배씩 나눠 진행되는 절을 다른 취재 일정 때문에 한꺼번에 한 것이 무리였나 보다. 그러나

시작의 각오 때문인지 첫날 기도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다리통증으로 앉는 소리를 내며 하룻밤을 보낸 뒤, 둘째 날의 다리 상태는 최악이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대중의 힘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진 까닭인지 절을 하는 동안 다리의 통증

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2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 동안 동참한 인원은 5천여명.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졌고 정겨워졌다. 눈을 마주치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서로 합장인사를 건네게 되었다.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한 도

량에서 기도한다는 일체감이 너 나 라는 경계를 허물었다. ‘모두가 함께, 잘 회향했으면’ 하는 마음만이 가득해졌다.

3월 4일, ‘나무수미상여래불’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삼천배를 회향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감사함’이었다.

절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절을 함께 한 전 대중들에게, 또 내가 앞섰던 나무바닥에까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다.

전각 문을 여니 햇살, 바람까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래서 힘든 줄 모르고 3천배 기도를 하는구나.”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스님과 도반들이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도우며 기도를 하니 힘든 줄도 모르고 5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며 회향의 기쁨을 들려주는 정모길상(57) 보살의 마음이 꼭 내 마음 같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삼배로 삼천배를 회향했다. 절을 마치고 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3천 번의 절을 했는데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구나. 삼천 번의 절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일 배를 올릴 때의 간절함 속에 삼천

배 기도의 참된 의미가 깃들여 있었구나” 하는. 삼천배를 회향하고 경주로 방생을 떠나는 대중들의 얼굴은 봄 햇살 속에서 더욱 맑고 환했다.

부산 감로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은해사, 화북댐 건설 반대 결의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본말사 스님 40여명은 2월 28일 인각사에서 교구총회를 열고 화북댐 건설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5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댐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스님들은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주변에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민족성지를 말살하고 민족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위”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화북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민족성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화북댐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해 교구 본사 주지, 지역 대표 스님, 교구 신도회장, 인각사 신도회장, 낙동강 환경 연구소, 생명운동본부 등을 위원으로 하는 ‘화북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은해사 총무 법일 스님, 간사에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을 임

명했다.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87년 인각사 인근에 계획중이던 고로댐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또다시 인각사에서 1.5Km 지점에 화북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변 정비사업 및 인각사의 훼손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밝히며 “인각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화북댐 건설로 인각사 훼손이 우려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인 스님은 2월 11일 화북댐 건설 반대하는 유인물을 군위군민에게 배포하였으며, 2월 9일 수자원 공사 측에 인각사의 보존가치를 설명하고 화북댐 건설에 있어 6개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히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측은 2월 17일 보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본 말사 스님들이 2월 28일 화북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내운 답변서에서 “착공을 앞두고 인각사측이 뒤늦게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환경영양평가에서 댐 건설에 따른 주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해 공사 강행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측은 2월 17일 보

어린이 지도교사 35명 배출 복지보건대 심리사 수료식

새책 포교의 일선에서 활동하게 될 어린이지도교사 35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2월 28일 부산불교회관 법당에서 열린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제 5기 졸업식)에서는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70명의 6기 신입생이 입학식을 가졌다. 불교어린이지도자 교사에서 합격한 66명이 받은 불교 어린이 지도자 자격증은 조계종단 최초로 어린이 지도 교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로 어린이 법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이사장 박태원)은 2월 28일 제4기 삼리상담사 과정 자격취득자 수료식을 가졌다. 졸업논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한 삼리상담사들은 앞으로 상담봉사활동으로 배움을 널리 회향할 것을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유호복지관 어린이봉사대 발족

어린이 자원봉사대가 발족된다. 유호복지관(관장 혜총)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 지역 내 초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어린이(늘푸른) 자원봉사대는 학교와 연계 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하재웅 연합회장 취임식

대구시 불교 신행단체 연합회는 2월 28일 영남 불교대학 관음사 법당에서 제4대 회장단 이·취임법회 및 박광서교수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하재웅(구도회)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행혁신을 통한 재가불자 정체성확립과 재가신행단체 위상확립, 그리고 불자의 결집된 힘을 사회에 회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우학 스님은 “불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불교인들은 무명의 늪에 빠진 것을 알고 있다. 낙관적이지 못한 지역불교현실이지만 신행단체 대표들이 더욱 분발하여 불법을 널리 펴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개인택시 법륜회 창립기념회

대한불교 개인택시 법륜회(회장 박명철)는 4일 부산 불교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여어선원장 정여 스님, 최익두 동래구 부구청장을 비롯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철주(부생애술교) 학생, 조태구(웅호중) 학생을 비롯한 21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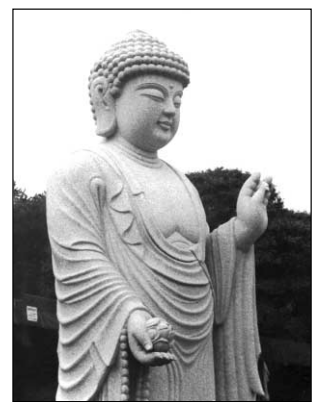
2월 28~29일 교사들, 도동농의 친구들의 ‘천성산 습지생태투어’. 지울 스님은 법수계곡에서 도동농 일을 사진에 담아 왔다.

천성산 문제가 다시 긴박해지는 조짐이다.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사가 구간별로 일제히 시작되면서 천성산 구간에 대한 나무베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월 27일 ‘도동농 소송’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희망적인 판결이 나갈 기다리고 있던 지울 스님에게 천성산의 나무가 잘려 나간다는 소식이 최악에 가까운 소식이다. 그러나 스님의 행보는 신중하다. 경부고속철도 관통 반대와 관련 ‘도동농 소송’을 진행해오며 법정 논쟁을 불러온만큼 법의 잣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길 원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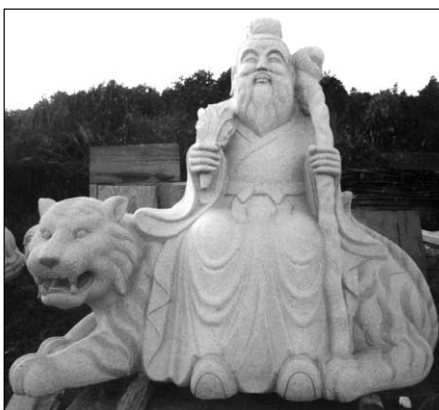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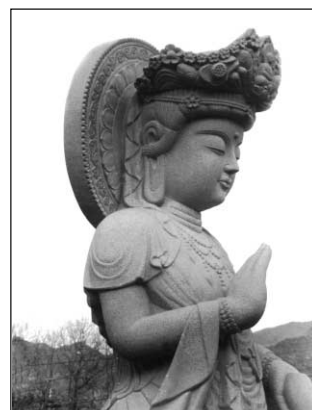
지울 스님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것과 전통사찰보존법상 해당 사찰 주지스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법적인 허자가 있다는 게 심리 과정에서 밝혀졌다”며 법적인 해결이 우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도동농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24만 명의 도동농의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봄이 오면 도동농을 계곡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도동농이 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온 고속철공단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악의 경우, 뚝으로라도 공사 강행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지울 스님은 3월 10일경 나무베기 공사가 진행중인 계곡리에 망루를 설치, 현장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대한민국 불교 조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청원스님 개인전

(동국대학교 불교조각과 교수)

□ 일 시 : 불기2548년(2004년) 4월 7일부터 19일
□ 장 소 : 서울 공평아트센터 1층 전시실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는 동국대학교 불교조각과 발전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강서예술촌 051) 972-3912, 공평아트센터 02) 733-9512~4